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122)

등록문화재 관리 허술 ③ 어승생악 동굴진지
병커형 갱도·토치카시설 등 훼손 우려 커져

입력 : 2008. 11.13. 00:00:00



▲견고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어승생악 동굴진지 내부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훼손되고 있다.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제주도민 볼모 결7호작전 위한 복곽진지 길이 3백m 대형 갱도진지 입구 최근 함몰

어승생악 동굴진지(등록문화재 제307호)는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 최후의 '복곽진지'로 구축됐다. 해발 1,169m의 한라산 깊숙한 산악지대에 일본군 군사시설이 만들어진 것이다. 어승생악 동굴진지는 당시 제주에 진주해 있던 일본군 총병력을 지휘하는 제58군사령부 주둔지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 결과 어승생악 정상부와 사면에서는 토치카를 비롯 당시 구축한 군사시설이 남아있다. 하지만 어승생악 동굴진지 역시 무관심속에 방치되면서 훼손되거나 함몰될 위협에 노출돼 있다.

▶조사 결과 밝혀진 것=조사 결과 어승생악 동굴진지는 토치카 2곳과 3곳의 갱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치카는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오름 사면에 위치한 갱도는 총 길이가 4백여m에 이른다. 특히 토치카 뿐 아니라 갱도 역시 콘크리트로 내부가 마감돼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는 심각한 전시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곡식은 물론 낫그릇 등을 닦치는대로 공출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했다. 그런 점에서 한라산 고지대인 어승생악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었다는 것은 '결7호작전'을 지휘하는 58군사령부 주둔지로서 매우 중요시했음을 잘 보여준다.

오름 남서쪽 사면에 위치한 송이층(scoria)을 뚫고 만들어진 갯도는 길이가 3백여m 되는 대형이다. 또한 1백m 정도 되는 갯도 역시 남아있다. 갯도는 내부구조가 격자형으로 돼 있는 등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

어승생악 동굴진지 구축에는 일본군에 징집된 도민(징병 1기생)들이 공사현장에 투입돼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당시 동원됐던 생존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이들은 58군사령부가 어승생악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이미 1945년 3월 전후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승생악 정상부에 위치한 토치카 시설

▶**실태는 어떻게**=어승생악 동굴진지 또한 관리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얼마전까지만 해도 온전하게 남아있던 갯도 입구가 무너져버린 사례도 목격된다. 이 가운데 특히 3백여m의 대형갯도는 오름사면에서 나무가 넘어지고,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입구가 막혀있는 상태다. 이 갯도는 취재팀이 2005년 처음으로 확인했을 당시 입구가 3곳 나 있었다. 또 내부구조는 격자형으로 크고 작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다. 한라산 고지대에 위치한 어승생악 사면에서 발견된 이 갯도는 최후의 복곽진지이자, 일본군 제58군사령부 주둔실체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대형갯도는 이번 학술조사 과정에서 입구가 무너진 것으로 파악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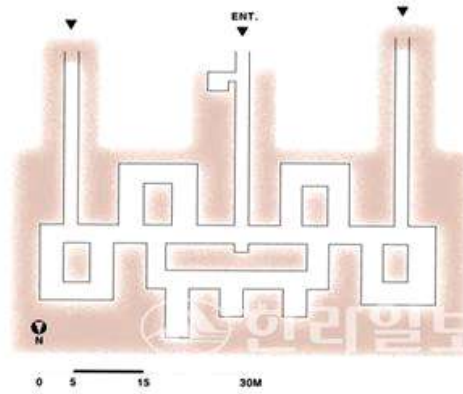
콘크리트로 마감된 갯도 역시 차츰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승생악 정상부에 남아있는 토치카 2곳 가운데 1곳은 내부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나머지 1곳은 입구를 막아 폐쇄돼 놓은 상태다.

▶**정비보존 방안은**=어승생악 동굴진지는 일본군 최고지휘부인 제58군 관련 시설이다. 일본군이 제주도민을 볼모로 제주섬에서 전개하려고 했던 결7호작전의 실체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이런 역사성을 감안 어승생악 동굴진지에 대한 정비 보존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정상부의 토치카 시설은 그 자체로서의 상징성이 크다. 또한 제주도내에서 그 유형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전쟁유적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높다. 현재 폐쇄되어 진입이 불가능한 토치카 1곳 역시 입구를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토치카는 견고한 콘크리트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안내문을 세우고 주변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입구가 함몰된 동굴진지 내부 약도

입구가 무너진 대형 갭도 등은 정비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모색돼야 한다. 어승생악 동굴진지 정비 보존은 한라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역사체험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미니해설 / 어승생악 동굴진지는?]결7호작전 지휘 58군주둔지

어승생악에 주둔했던 일본군 제58군은 독자적으로 제주도를 방어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58군은 1945년 4월20일 제주에 도착 제주농업학교에 주둔해 있다가, 그중 일부 병력은 7월4일 어승생악으로 이동 주둔했다. 어승생악은 96사단, 111사단, 121사단, 108여단 등 3개사단 1개여단 7만5천병력을 총지휘하는 58군 최고지휘부 주둔지였던 것이다.

미군 등 연합군이 상륙하고 해안저지선과 주저항진지 등이 돌파당할 경우 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어승생악은 일본군 전쟁지휘부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어승생악은 제주도 동부와 북부 서부에 이르기까지 거의 절반에 이르는 해안선과 내륙을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당시 일본군 진지구축 실태를 담은 군사지도인 '제58군배비개건도-제주도'에 표시된 복곽진지는 모두 10곳이다. 이 가운데서도 어승생악은 다양한 군사시설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복곽진지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크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